

## <죽음을 보지 않은 에녹>

### 목장교재 목자용 지침서

10/15(주일) 설교 내용

히브리서 11:5

1.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그 과정에서 우리 안에 발생하는 두가지 갈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두가지 갈등이 무엇인지 나누어 보고, 그 갈등을 뛰어 넘을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지만 두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 ① 이 세상이 주는 쾌락이 생각보다 좋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엉망이 아니고, 세상이 오히려 꽤 괜찮아 보이기에 그것을 포기하기에 그에 따르는 희생이 너무 커보이기도 합니다.
- ② 두 번째 갈등은, ①번의 갈등을 뛰어 넘는다 하더라도 과연 내가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에 대한 갈등입니다.

이 두가지 갈등을 뛰어 넘을 수 있는 방법은, <진정한 가치>를 깨달을 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 또는 목자나 목원들의 간증도 짧게 나눈다면 더 풍성한 목장예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내가 포기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내 삶을 돌아보며 진솔하게 나누어 봅시다.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여 익숙한 삶을 떠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자신들의 생활터전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그 무엇인가를 '포기'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 포기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반드시 세상적 쾌락과 같이 악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자녀사랑', '운동', '여행' 과 같이 큰 문제가 없어보이는 삶의 요소들도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과의 동행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솔한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십시오.

3. 오늘 말씀에서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새롭게 결단하거나 다짐한 부분이 있다면 그 마음도 함께 나누어 봅시다.

에녹은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은 아니었지만, 성경이 말하는 에녹은 단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해 나누었던 오늘 말씀 속에서 각자에게 주시는 감동과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향해,  
함께 달려갑시다!